



주후 2023.8.20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유튜브&카카오채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37 노블리제빌딩
406호 더블어섬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이메일

gilmokchurch@gmail.com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전도사 : 전정민
전도사 : 황예찬
음악사역 :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기타 : 황예찬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치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뱃 속 깊이 그리스도인

세상 철학과 자신의 감각보다 더 우선하는 건 성경,
익숙히 알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성경공부 및 주중 세미나] 주일 오후 2시 및 주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받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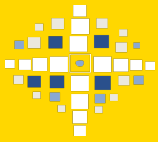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바쁜 현대인의 삶으로

건물 안에서만 고백하고 활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치열한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합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iam@theway.news

신앙, 성경에 대해 궁금한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주일에배

오전10:30 커피타임으로 시작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자

입례송.....〈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같이

F A Dm F/C Bb Gm7 Csus

왕 이 신 나 의 하 나 님 - 내 가 - 주 를 높 이 고 -

C7 F A Dm F7/C Bb C7 F Bb/F F

- 영 원 히 주 의 이 름 을 - 송 축 하 리 이 다

시편 교독.....〈시편 150편〉..... 다같이

(인도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인도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성도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인도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성도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인도자)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성도들)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인도자)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성도들)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참회 기도.....〈나,이웃,교회,나라,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나눔

말씀 교독 <히브리서 12:14-29> 다같이

말씀 듣기와 묵상 다같이

말씀 권면 이길주 목사

묵상 기도 다같이

응답의 찬양 다같이

♩ = 72

p F C Dm B♭ D G C , F C Dm Gm C 3 F

사 랑 의 나 눔 있 는 곳 에 하 나 님 께 서 계 시 도 - 다

2번 함께 부릅니다

말씀 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 감사 찬양 <감 사> 다같이

✠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4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쓰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뵈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쓰디쓴 불평이 잡초처럼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예리하게 살피십시오. 엉겁퀴 한두 포기가 뿌리를 내리면, 순식간에 정원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에서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에서는 나중에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아무리 울고불고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귀를 막은 자들에게 주는 경고 18-21 여러분은 조상들처럼, 화염이 솟구치고 지축이 흔들리는 시내 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천지를 울리고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을 듣고서, 벌벌 떨며 하나님께 멈추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서, 어찌나 무서웠던지 꿈짝도 못했습니다. 모세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험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른 곳은 시온 산,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도성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은 축제를 벌이는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스도인 시민들로 북적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새로 작성된 헌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분은 이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아벨이 당한 죽음은 복수를 호소하는 살인이지만, 예수가 당한 죽음은 은혜의 선포입니다. 25-27 그러니 이 은혜의 말씀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땅에서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이 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의 경고를 거역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의 뿌리까지 흔들었지만, 이번에는 하늘까지 흔드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철저히 흔들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라는 표현은 철저히 정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와 종교의 온갖 쓰레기를 치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을 말끔히 정돈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8-29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경외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냉담한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정리하시고, 태워 버려야 할 것은 전부 불사르십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질 때까지,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불이십니다!



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 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18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19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20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21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5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냐 26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말씀묵상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감사찬양

감사

D A/C# Bm F#m/A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G F#m Bm Em /G# A

내 뜻 대로 안 되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 감사

D A/C# Bm F#m/A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주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G F#m Bm Em G/A D G/A A7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하신 것 모든 것 -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D A/C# Bm F#m/A G D/F#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

Emn E7/G# A7 D A/C# Bm F#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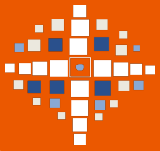
은혜 입 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G D/F# Em A7 D

사랑하신 주 사랑 - 감사 합 니 다

G A Bm7 G A D G A Bm7 F#m7 G A D G/A

항상



중보기도

중보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넣고
기도해보세요

길목교회 이길주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모리셔스 선교사 최인규 박정희입니다. 아프리카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모리셔스의 상황

모리셔스는 현재 이곳 계절로 겨울의 한가운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겨울처럼 춥지는 않지만, 한밤에는 영상 1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중부에 사는 현지인들은 오리털파카를 입고 출퇴근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추운 계절에 가장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정착과 생활

저희 가정은 은혜 가운데에, 모리셔스 장로교단과 성 콜롬바 교회 교인들의 도움으로 정착과 생활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길은 멀니다. 특별히 모리셔스는 실질적인 공용어가 여러가지 상황이어서 (생 활은 크레올, 사역은 프랑스어, 예배는 영어) 더 넓고 깊은 사역을 위해서, 여러가지 언어를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주님이 상황을 허락해주시면 올

연말부터는 언어학교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모리셔스 정착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정착은 주님 은혜 아래 잘 진행 되었습니다. 주은이 주아 둘다 학교를 좋아하고, 다양한 친구를 사귀며 학업과 교우관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역의 발걸음

주안장로교회 주안성전 청년부 비전트립: 지난 8월 3-14일까지 열흘동안 주안교회 청년부의 비전트립이 모리셔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은 모리셔스 장로교단의 초대를 받아서 이루어졌으며, 모든 과정을 모리셔스 장로교단 청년분과의 협력을 받아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리셔스라는 선교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더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기존의 단기 선교가 가지고 있던 [구제/ 공연-관광- 휴식]에서 벗어나서, 모리셔스 교단의 5개교회를 방문하고 만나며 [예배, 친교, 봉사]의 세가지 기둥을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모리셔스 장로교단 지역교회의 교회학교를 위한 '아트캠프' (태권도, 미술, 음악), 모리셔스 장로교단 100여명의 교인들을 초대한 '한국요리의 밤', 모리셔스 장로교단 청년들과 함께하는 찬양집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비전트립팀은 모리셔스 교회 역사상 한국에서 온 첫 비전트립팀이었습니다. 주안교회 비전트립팀 청년들의 헌신과 사랑에 많은 모리셔스 성도들과 청년, 아이들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사역: 모리셔스 장로교단안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건축된지 오래 되어서 노후화 되었고, 여름과 겨울철에 필요한 기구 (선풍기 등)나 교회부엌에 있는 기구 (냉장고,세탁기)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3년 성탄절을 중심으로 각 교회의 노후화된 장비,시설을 수리하고 새로 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은이 (고1) 주아(중1) 학교와 교회생활에 잘 적응하여서, 저희 부부의 어린이사역과 교회학교 사역을 도우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모두 주님 은혜입니다. 언제나 모리셔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최인규,박정희,최주은,최주아 선교사 드림



교회안내

하나님나라를 위한 길목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12:3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30~3:3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전도사	황예찬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황예찬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헌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의 추구가치

길목교회의 방향성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소식

주님 나라를 위한 행복한 공동체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 커피토크

오늘 예배 후에는 온 교인이 함께하는 커피토크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수련회 때 약속된 팔방수 파티도 이어집니다. ^^

장례 마침

김점순 집사님의 따님, 박진희 자매님의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또 하나님주시는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권면 담당

다음주(8.27) 주일 권면은 황예찬 전도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을 위해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여름 휴가

전정민 전도사 - 8.20 (오늘) / 이건명 집사 - 9.3

담임목사 성지순례 사역

이번주 수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 봉평감리교회 교우들과 함께 이스라엘-요르단 성지순례 가이드 사역을 떠납니다.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해주시옵시요.

길목교회 강아지 식구 두둥

길목교회의 식구가 늘었습니다. 몰키종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함께 할 견선생님입니다 ^^ 앞으로 친하게 지내주세요~